

성명 : _____	최초 : _____ 자	현재 : _____ 자	향상도 : 약 _____ 배
<b>호두까기인형</b>			중국 민화집
호프만			
어느 크리스마스 날, 마리라는 소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33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약삭빠르고 교활한 계으름뱅이고,	42
그 중엔 호두까기인형이 있었어요.	51	아우는 올곧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에는 점정소 한 마리가 있는데,	81
호두까기인형은 호두를 입안에 넣고 깨는 기술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89	아우가 소를 잘 거두어 주었으므로 소도 아우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118
그런데 오빠인 프란츠가 심술을 부렸어요. 호두까기 인형을 고장 내켰어요.	129	밭을 갈 때면 달리듯이 생기를 끌어 주었습니다.	144
"이를 어찌! 어쩜 좋아!"	144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는 한꺼번에 부모를 잊었습니다.	177
마리는 망가진 호두까기 인형을 만지며 울었어요.	170	형과 아우는 올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후고 삼칠일에 탈상도 마쳤습니다.	217
그날 밤, 마리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193	바로 그 탈상 날 밤의 일입니다. 아우가 자고 있는데 검정소가 문을	254
그런데 꿈 속에서 생쥐들이 쳐들어오지 뭐예요. 하지만,	223	열고 들어와 영뚱한 말을 했습니다.	273
"기다려라, 이 생쥐들아!" 하며 칼을 뽑아 들고 달려온 건 바로 호두까기인형이었어요.	271	"분가해서 재산을 나눌 때, 소만 가진다면 아무 일이 없다."	307
호두까기인형은 생쥐들과 싸웠어요.	289	아우는 소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자 주위가 캄캄해서	347
"우리도 힘을 합쳐 호두까기인형을 돋자!"	312	꿈을 꾸었음을 알았습니다.	361
이번에는 병정 인형들이 나타나 생쥐들을 공격했어요.	340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가려는데 형이 왔습니다. 형은 무슨 일이 있든	400
마침내 생쥐 여왕이 죽자, 주위가 환해지지 뭐예요.	368	분가를 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우가 하는 수 없이 승낙하자	440
그리고 호두까기인형은 금발 머리 인형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402	형은 그날 안으로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473
호두까기인형이 마리에게 말했어요.	420	"금은보화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고, 가게의 물건들은 아버지가	511
"우리들은 본래 왕자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생쥐들을 죽이자,	459	내게 남겨 준 것이다. 그리므로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집과 받은 약간	551
생쥐 여왕이 우리들에게 마술을 부렸어요. 우리들을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499	나눠주마. 연장도 갖고 싶으면 몇 개 가져가도록 헤라."	582
이제야 마리 아가씨의 도움으로 본래의 왕자와 공주로 변하게 되었네요.	537	그때 아우는 검정소가 한 말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612
고맙습니다."	544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만 주시면 됩니다."	644
"아, 그랬었군요."	555	하고 말했습니다.	653
"마리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마리 아가씨를 과자의 나라로 초대하고	597	형은 소가 있어도 쓸데가 없었으므로 아우에게 소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693
싶습니다. 사탕과 초콜릿과 크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으로 가시지요."	635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친척들은 그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나,	734
"어머, 좋아라!"	645	그렇게 말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770
그런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67	다만 뒤돌아 서서 살그머니 "형은 교활하고, 동생은 너무 욕심이 없어."하고	812
"애, 마리야! 빨리 일어나거라!"	686	말했을 뿐입니다.	821
엄마 때문에 마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708	형은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하고 나자 매일 같이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860
잠에서 깨어나 보니, 책상 위에 호두까기인형과 금발 머리 인형이 보였어요.	750	빈둥빈둥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안 되어 집 안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903
마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567	그러나 아우는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했으므로	939
		쌀가마가 곳간에 넘칠 정도로 잔뜩 쌓였습니다.	964

어느 날 밤, 아우는 또 검정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소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뼈를 땅에 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008	수많은 낫이 시장에 깔렸지만 날만 있고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가 자루를 지고 장에 가자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2000
이튿날 아침, 형이 화를 내며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1046	형은 샘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34
"검정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니 너 혼자의 것이 아니다. 팔아서 돈을 나눠 갖도록 하자."	1074	"이 대추나무는 우리 두 집의 것이다. 한데 네 뜻은 별써 다 사용했으므로 나머지는 내 것이다."	2053
아우는 형의 기세에 눌려 그러자고 했습니다. 형은 곧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1111	아우는 형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은 목수를 데려다가 낫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무렵에 낫자루를 짊어지고 온 마을로 팔러 다녔지만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094
나중에는 형을 뿔로 받아 쓰러뜨렸습니다. 화가 난 형은 소를 죽여서 가죽은 팔고, 고기는 먹고, 뼈를 거름통에 버렸습니다.	1129	아우는 형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은 목수를 데려다가 낫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무렵에 낫자루를 짊어지고 온 마을로 팔러 다녔지만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106
아우는 울면서 그 뼈를 모아 마당 한가운데 묻어 주었습니다.	1168	이듬해 여름에도 팔려 다녔으나 역시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형은 울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낫자루를 전부 아궁이에	2146
며칠이 지난 후 쇠뼈를 묻은 자리에서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싹텄습니다.	1204	집에 넣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2184
아우는 대추나무를 보자 죽은 검정소가 생각나서 매일같이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추나무는 나날이 자라서 마침내 쳐다봐야 할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1242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불이 점점 커져서 순식간에 집을 태우고 집주인인 형까지 타죽게 했다고 합니다.	2208
이윽고 가을이 되자 듯이 열매가 달렸습니다. 더구나 그 열매는 크기가 계란만 하고 잘 익어서 매우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대추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시장에 팔러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습니다.	1272		2248
"대추나무는 우리의 마당 한가운데 난 것이므로 너만 혼자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된다. 내년에는 내가 벌겠다."	1305		2286
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1343		2304
아우는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승낙을 했습니다.	1431		2341
그런데 형은 대추나무가 자랄 봄이 돌아왔는데도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추가 열리면 돈을 받고 팔 궁리만 했습니다.	1469		2362
가을이 되어 대추가 열렸으나 알이 작고 얼마 되지 않는 데다 모두 별례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1510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대추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렸습니다.	1545		
그날 밤, 또 아우의 꿈에 검정소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1585		
"대추나무를 잘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낫자루를 만들어 팔면 된다."	1606		
아우는 검정소의 말대로 대추나무를 반반 잘라, 그것으로 여러 개의 낫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1645		
다시 여름에 접어들자 보리의 대풍작이 예상되었습니다.	1685		
	1721		
	1760		
	1771		
	1805		
	1836		
	1875		
	1911		
	1939		
	1968		